

우리 섭리가 우주 섭리와 더불어 같이 돌아간다

29면에서 계속

천세계"라는 것이 그런 데서 말이 나온 거라. 대천이 있으면 중천이 있고 소천세계가 있어, 우주 세계. 우주 세계에는 헤아릴 수가 없이 은하계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은하계 본부가 세 개라면 이 세 개의 은하계가 있기 때문에 은하계와 흑성들이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광대무변한 섭리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렵니까. 나는 말로다 파악을 못하겠습니까. 말로 여러 분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똑바로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칭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만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걸 한마디로 포집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세 가지의 소인을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거 하는 사람입니까?'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모두가 광대무변하게 벌어진 이 세계, 때에 따라서는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데 조그마한 어떠한 물체가 자주 커지다가 보니까, 이 지구에서도 사람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왔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현상이, 예전에 몇천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도 없어지는 수가 있고 물에 나갔다가도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텃밭 안에 들어가서도 없어지는 수가 있고, 그것은 말을 들어서야 아납니다. 지금도 커지면 커질수록 드문드문하지 않는 것이 있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왜 인간이,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 얼마든지 모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인간 되기 이전, 밑으로 연쇄적으로 내려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전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절에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거는 들은 얘긴데, 그 얘길 들은 순간에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보통 있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못 있어서 말입니다.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이렇게 그냥 얘기하죠. 자식은 그 어머니가 개로 태어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강아지가 따라 들어와서 영 나가지지를 알아야. 내쫓으면 또 들어오고 내쫓으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꾸니까 어머니가 강아지처럼입니다. 강아지가 말을 하기를 '내가 니 예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아지가 또 변해서 자기 어머니로 보이면서 강아지가 됐다 어머니가 됐다 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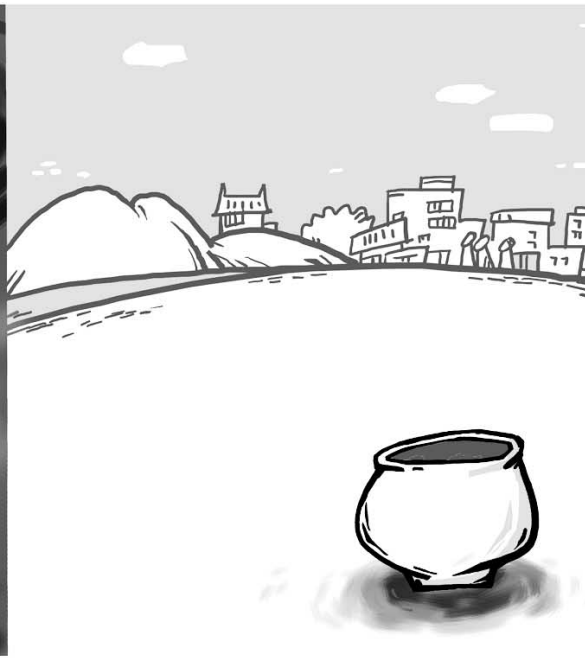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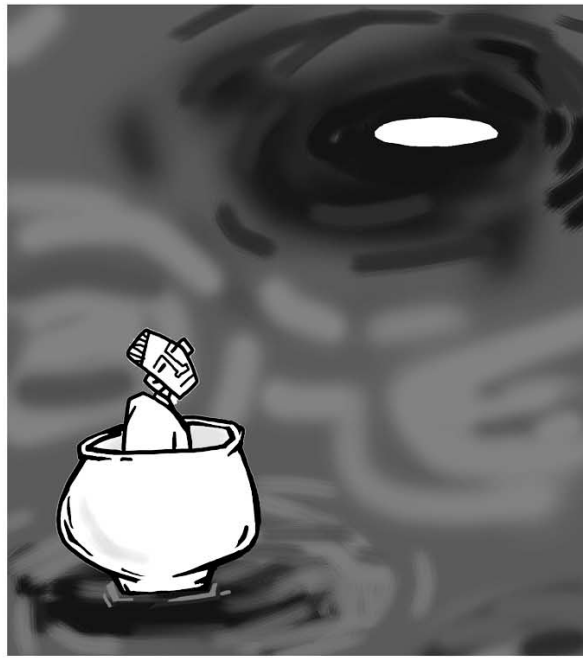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데,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자 바로 나의 모습이었는데, 덩석 깨안고 위로해 주는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내 마음을 내가 위로하는 거라. 모두가 돌이 아닐지언데 광대무변한 법, 그 법칙에 의해서 자연으로서 돌아가는 향기로운 그 꽃내음을 온 누리에 안 풍길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은 몸으로 다니면서 하고 말로 하기보다는 한생각으로서 우리 국내를 지키며 또는 세계를 조정하면서 우주에 상응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좀 더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항상 넓게 지혜롭게 생동력 있게 살게끔 언제나 내가 돼주는 그런 마음, 마음세를 가지고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어찌 남의 아픔이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왜 신 한 짝을 머리에 이고 갔을까요? 뜻이 그렇게 묘한데도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무생의 이치를 모르고 유생의 곱데기만 보고선 좌우하는 거야, 결정을 짓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에이그!' 말만 듣고 또 그 사람이 돼보지도 않고 결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싸워야 하고 증오해야 하고 미워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 일로 대국적인 일도 벌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만한 불씨가 전체 큰 불씨가 될 수도 있고 큰 불씨가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부처님께서 가르친 거는 화두법이다 좌선법이다 또는 묵조선이다 관화선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도 모두 근래에 난 거지 전자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올 때는 문이 좁아도 나가면 문이 넓고 별판이 돼야지, 길 없는 길이 돼야 하고 밭 없는 밭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뛰어넘으려면 불도 있고 가시도 있고 물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뛰어넘는데 어찌 있는 발로만 뛰어넘으려 하십니까? 그리고 길이 있는 데로만 가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십니까? 길 없는 길이 있고 밭 없는 밭이 있고 손 없는 손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는 한 점의 마음에서 그 양면을 다 잡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오장육부에 정맥 동맥을 다 가지고 있듯이.

그럼 오늘 이것으로써 끝마칠까요.

※ 위 문은 1986년 3월 16일 법체법회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광대무변하게 비춰준다 하더라도 한 인간의 티끌 같은 불씨 자체보다는 못하다!

다. 그 다음부터는 그 강아지를 내쫓지 않고 어머니로 모시고서 밭도 쟁겨주고 웃도 해 입하면서 목욕도 날마다 시키면서 절로 모시고 다니며 대장경도 좀 보게 해드리고 각 절마다 구경을 시켜 드렸답니다.

자식은 효자로서 세상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건만, 어머니는 사람으로 살던 마음만 있고 개의 허물을 썼으니 사람과 개의 허를 쓴 거는 정반대로 갈라져 있다 이겁니다. 세계가 다른 거야, 개 세계하고 사람 세계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살다가 죽어서 그렇게 율거기도 모습을 달리 했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형제가 그렇게 됐는지 부모가 그렇게 됐는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

다면 원수는 도끼 가지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아는 자신의 자성불은 모든 전체, 대의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보려면 하나도 남이 없고 하나도 죽일 게 없고 하나도 살릴 게 없고 모든 게 그대로 자연입니다. 전부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정말 간절합니다. 이 뜨거운 피가, 여러분의 피나 뜨거운 이 마음의 피나, 솟구치는 이 피가 바로 여러분의 피며 내 피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한탄도 했습니다. 예전 얘깁니다. '임이여! 무지렁이 같은 나를 이렇게 가르쳐서 모두가 돌이 아닌 것을 알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립니까?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고 한탄을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남 못 듣는 데서 노래도 했고, 노래가 시도 됐고 시가 노래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방곡곡에 다니는 데 없이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지요. 내가 왜, 문패도 번지수도 없이 이렇게 갈까? 아하! 이것은 어딘가가 돌이 들고 돌고 돌듯이 쫓겨돌듯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 아닌가?

우주 만물 만생이, 유생 무생이 다 같이 이렇게 돌고 있거늘 어찌 환상으로 보이는 귀신을 보곤 마다하고 달아나갈까. 그리고 무섭다고 하나. 그렇게 달아나갔기 때문에 해지지 않나. 동심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면 모두 우리 부모형제가 죽은 영들인데, 내 몸 내 마음 내 모습이었는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합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유량한의원 유량관절염은 수십년 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들과 진행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꼈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르신 분

유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지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 농업 100023-56-156761(조명숙)

간(肝) 이

간 지방간
간 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도종 웅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더럽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미를 토종 [민속농원]